

社說

시설관리공단 설립 3년째 공방전

3년여 동안 보류되었던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다시 추진중에 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보류된 것은 청소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포천시의회와 민간위탁된 것을 회수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포천시와 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천시가 또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市조직개편을 염두해 두고 있는 측면이 있다. 포천시는 공직사회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포천시 조직을 개편해 공직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업무추진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뭔가 주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막상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나 시의회에 제출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조례가 심의보류된 채 3년여간 잠자고 있는 점이 걸린다.

시가 시의회와 협의한 끝에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 4곳을 방문한 후 협의해 추진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방문 후에도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점사항이 되고 있는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시설관리공단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현재 4개 업체에 민간위탁된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위탁했을 때 발생하는 일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을 철회할 경우 관련법상 청소

업무 직원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혹은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요되는 금액만 하더라도 100억원대가 된다는 추측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현재 민간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업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생기는 청소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입장은 다르다.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 취지가 예산절감이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이다. 현재처럼 4개 민간업체에 위탁하다 보니 정작 청소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 임금까지 지불해야 하고 관리비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게다가 청소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대행업체에서는 목살하는 경우가 많고 불친절 등 주민서비스 제공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고수하고 있다.

포천아트밸리와 청소년 수련원 등 시설이 많이 건설되다 보니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포천시와 시의회 입장이 같다.

그러나 유독 청소업무에 관해서는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나 시의회는 청소업무를 포함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8 새해설계 ⑥ 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포천시 공무원을 만나고 싶다”

교통문제 해결 위한 각종 도로사업 추진에 관심 갖고 노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나 일을 배우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변해야 될 것은 포천시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만 내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문 하나 달랑 보내놓고 예산 반영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경기도나 중앙정부 관련부서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힘이 부족하면 경기도를 방문할 때는 경기도의회 의원, 중앙정부를 방문할 때는 국회의원에 협조를 구하면 된다.

에코시티의 경우도 관련법률 통과로 사업시행이 가능해졌으니 예산을 반영시켜야 한다. 경

기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니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선과 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김 의원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지역의 중요한 언론매체로서 역할에 감사 드리며 쓴소리, 단소리를 통해 포천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은 “지역의 중요한 언론매체로서 역할에 감사 드리며 쓴소리, 단소리를 통해 포천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작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제기한 민원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을 때 울먹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때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는 김 의원은 포천시 현안사항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도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산악안내표지판 일제 정비교체

포천소방서 등산객 산악사고 방지위해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3월 13일 봄철을 맞아 주5일 근무로 웰빙생활 추구의 활발한 레저 활동등으로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악사고 안내표지판등을 정비·교체하는 등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산에서 각종 조난·사고시 신고자가 119에 사고 위치 등을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포천소방서에서는 산악안내 표지판에 대해 탈색·훼손·망실 등 노후 표지판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간이신고위치 표지판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전면 교체키로 했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소방서는 3월 13일 봄철을 맞아 주5일 근무로 웰빙생활 추구의 활발한 레저활동등으로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악사고 안내표지판등을 정비·교체하는 등 인명구조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학교폭력예방교실 경기경찰 홍보단 공연

포천경찰서, 포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

포천경찰서(서장 김귀찬)는 3월 12일 12시 포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교사,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실의 일환으로 경기경찰 홍보단의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이날 공연은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실을 시작으로 홍보단의 공연으로 이어졌다. 홍보단은 학교폭력예방을 주제로 한 단막극, 비보이, 미술, 밴드연주 등을 공연했다.

“경찰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포천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장 장수옥 교사는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경찰에 대한 친근감을 더욱 갖게 되는 기회가 됐으며, 전교생이 모두 관람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고 말했다.

포천경찰서는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학교폭력예방에 힘을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3월 12일 12시 포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교사,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확립을 위한 학교폭력예방교실의 일환으로 경기경찰 홍보단의 공연무대를 마련했다.

포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포천경찰서와 포천시, 포천시의회 참석

포천경찰서는 3월 12일 법질서확립 T/F팀과 종교단체, 언론 등 유관기관 관련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김귀찬 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권력 실효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고 “초인류 국가에 임박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들은 기초법 질서를 통해



포천경찰서는 3월 12일 법질서확립 T/F팀과 종교단체, 언론 등 유관기관 관련자들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늘어나는 각종 시설물과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지역 보행로 인상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증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장은 우리나라가 “기초질서 순위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7위로 나타났다”라고 “기초 법 질서확립을 위한 언론, 종교단체, 교육관계기관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무협의회를 당부했다.

지역실무협의회는 이날 회의의 통해 지역치안 자원봉사자 모집, 학교별 기초질서 의식교육 및 범죄 예방교실운영 등을 논의했다. 특히 포천시의회 강병수 전문위원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피해 사례를 발굴, 집중 조망해 시민들의 질서 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단속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시민들의 반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재 자치행정과장도 “향후 추진을 위한 전략, 그리고 각 기관 사회단체별 중점 추진사항을 포천시가 기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도로: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편집국 (031)542-1506  
광고접수 (031)542-9888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준수요건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3월 10일 ~ 3월 1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정기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최근발행현황

- 2008. 3. 10 포천신문 제406호 발행
- 2008. 3. 20 포천신문 제407호 발행
- 2008. 3. 31 포천신문 제408호 발행예정